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uly 8, 2022 Vol. 820

“한국교회 · 미주한인교회 한반도 복음통일 준비한다”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컨퍼런스’
8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가 주최하는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컨퍼런스’가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직 복음통일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휴스턴 한빛장로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 역류 경험이 있는 임현수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담임목사, 흰돌교회 오창희 담임 목사 조평세 박사, 박대현 대표, 강석진 목사, 김요한 목사, 김학송 선교사, 강동완 교수, 박상원 목사 등 한국과 미국의 북한 선교 전문가들 강사로 나서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복음 통일의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탈북 신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북한 선교의 실제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탈북 경험이 있는 젊은 탈북자 청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상황과 북한 선교에 필요한 사역과 노하우를 북한 주민의 시각에서 전하게 된다.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세미나를 준비하는 김학송 선교사(좌)와 박상원 목사(우) ©기독일보

침신, 감신, 성결, 장신, 종신 등 다양한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탈북 신학생들은 자신들의 간증과 더불어 한반도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를 내다보며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조언할 예정이다.

8월 15일 컨퍼런스 첫날 개회 집회는 임현수 목사가 “오직 복음통일만이 답입니다”라는 주제로 설교한다. 둘째 날에는 탈북 신학생들의 간증이 이어지며 저녁 집회는 고명진 목사가 “오직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셋째 날은 조평세 박사가 “링컨의 노예 해방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박대현 대표가 “잘 정착된 북한 청년들이 대안일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오창희 목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저녁 집회를 인도한다.

넷째 날은 강석진 목사 “근현대사속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일 비전”, 김요한 목사가 “북한상황하에서 본성경적통일선교 신학과

전략”, 김학송 선교사가 “북한농업은 물이 답이다” 주제로 강의하고 강동완 교수가 “그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저녁 집회를 인도한다.

마지막 날은 박상원 목사가 “북한주민의 생각은 무엇으로 포맷되었나”, 김연영 선생이 “10대는 북에서, 20대는 남에서”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이어간다. 마지막 날에는 폐회집회와 함께 통일공모시상식 및 연합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현수 목사는 “준비가 안 된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통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평화의 중재자로서 남과 북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주 한인 이민 교회가 다시 일어나 조국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원 목사는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주제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복음통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의 힘이 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컨퍼런스 참여문의는 박상원 목사 425-775-7477, 휴스턴 한빛장로교회 713)643-4348 혹은 www.gideonbrothers.org로 하면 된다.

미국인 81% “하나님 믿는다” ... 2017년 이후 6% 하락

미국 성인 중 81%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지만 이같은 비율은 2017년 이후 6% 포인트 하락한 결과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갤럽은 1947년 처음 이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와 1950년대, 1960년대 두 번 조사했을 때 일관되게 98%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그 비율이 92%로 감소했다.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87%까지 떨어졌다.

“최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청년들과 정치적 좌파(민주당원) 사이에서 가장 많

이 떨어졌다. 이 그룹의 2022년 수치를 2013-2017년 여론조사 평균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갤럽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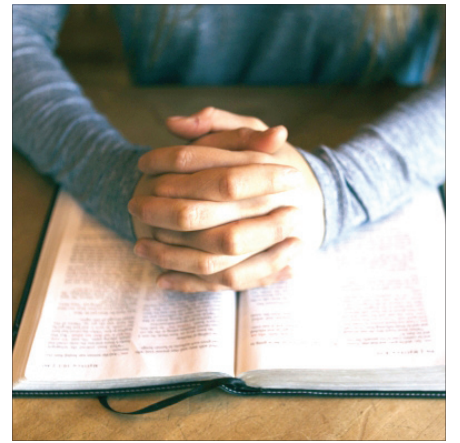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72%, 진보주의자(liberals)의 62%, 청년의 68%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갤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치적 보수주의자(94%)와 공화당(92%) 사이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종교가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가 86%로 가장 높

지만 2017년 결과인 93%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동부(78%)다.

지난해 12월 갤럽은 미국인의 49%가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27%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했고, 25%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갤럽이 1965년 처음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70%가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 비율은 1978년 조사에서 52%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비율은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거의 60%까지 치솟았다가



©Unsplash

지난 15년 동안 감소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 3%만 미전도종족 전도 집중”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 중 3%만이 미전도종족 전도에 집중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전 세계 1만7천개 종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 노력을 추적하는 기독교 단체인 조슈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에 따르면, 지구상 약 77억 인구 중 30억 이상이 미전도종족으로 간주된다. 그 중 약 7천개의 종족 그룹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다. 이는 2% 미만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5% 미만이 어떤 형태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로 식별됨을 의미한다.

전 세계 복음화 사역단체 이스트-웨스트(East-West)에 따르면, 미전도종족 세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2%를 차지한다. 물리적, 정치적, 문화적 장벽을 포함해 이러

한 그룹이 미전도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CP는 “이 종족 그룹 중 많은 수가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 살고 있어 전도자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 종족 선교사들은 적대적인 국가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를 비롯한 문화적,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미전도종족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슬람교, 힌두교 및 기타 종교가 지배적이며 기독교나 타종교로의 개종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스트-웨스트에서 인용한 ‘트래블링 팀’(Traveling Team)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0만명의 기독교 선교사 중



미전도종족 ©MVP선교회

3.3%만이 미전도종족에 집중하고 있다.

이스트-웨스트 설립자인 존 메이즐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전한 배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라고 했다.

메이즐 대표는 1980년대와 90년대 냉전 시대에 국제적인 사역을 위해 여행을 했고 그 결과 이스트-웨스트 사역 단체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하신다고 믿는 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LA 하늘문교회 기도모임에서 설교하는 피종진 목사

LA 방문한 피종진 목사, 남북한 자유통일 위한 기도와 협력 당부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령충만함을 권면했다.

피 목사는 “마지막 때는 전쟁과 재난 기근과 함께 불법이 성행하고, 바울 사도의 예언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고통 받은 때가 이른다”며 “작금의 남북한 현실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본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자”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독려했다.

피 목사는 이번 LA 방문에서 오렌지카운

티 순복음제자교회 집회를 시작으로 미주 서북지역 세계기도회, 엘에이 평화교회 부흥성회, 오렌지카운티 교계 지도자 세미나, 세계 기독교어머니기도회 남가주지부 창립 예배, 하늘문교회 기도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한 달에 한번씩 개최 할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세계기도모임 대표 피종진 목사가 LA를 방문해 남북한 자유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하늘문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기도모임을 인도한 피종진 목사는 “종말을 사는 지혜”(벤전 2장 9-10절)라는

오하이오주 대법원,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유효’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1일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은 후 발효된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막아 달라”는 가족계획연맹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 판사는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2019년 공화당이 통과시킴)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가족계획연맹은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긴급 명령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청원자들은 “이 법안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낙태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낙태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막혔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수호해 온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트위터에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며, 우리 사건의 이

익을 고려해 가혹한 6주 금지령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혼란을 느낀다”고 했다.

오하이오 기독교 단체인 ‘Center for Christian Virtue’의 애런 배어(Aaron Baer) 회장은 주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배어 회장은 “그들의 소송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망상적이고 위험한 세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 주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계획연맹의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ACLU는 친낙태 단체인 재생산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와 함께 애리조나, 아이다호,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11개 주에서 낙태 금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주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미주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강혜진 기자



미주장신대동문회, 모교에 장학기금 5천 달러 기탁. 좌부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회계 김선광 목사, 부회계 이순애 목사, 부회장 이민란 목사, 총장 이상명 박사, 회장 이경화 목사, 이사장 전영훈 목사, 장학위원장 손태환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모교를 방문해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재학생들을 위해 ‘동문 장학기금’ 5천 달러를 전달했다.

동문회 회장 이경화 목사는 장학금을 증액하여 앞으로 학부 과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장학위원장 손태환 목사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교계 및 동문회의 기동이 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동문회 장학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불학기와 가을학기에 각 한 명씩 선발해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P · R · E · A · C · H · I · N · G · C · L · I · N · I · C

2022년 뉴노멀 시대

이동원 목사 초청 강해설교 클리닉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지구촌목회리더십센터 대표

- ▶ 일시: 10월 10일 (월) 2PM ~ 12일 (수) 9:30PM
- ▶ 장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 ▶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 특강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프리칭월드 대표)
- ▶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
- ▶ 등록비: 개인-\$150 / 부부-\$200
9월 10일까지 등록시 개인-\$130 / 부부-\$180
Payable to 'Preaching World'
점심 및 교재 포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 ▶ 세미나 준비 및 안내
프리칭월드 권석균 목사 (404)579-4570
준비위원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준비위원 오정택 목사 (805)208-8242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213)718-1512



강태광 목사
월드어USA 대표



오정택 목사
주하나교회 담임



이인규 목사
기독교일보

주최 프리칭월드

후원 글로벌신학대학원, 미주침례 신문, 월드쉐어USA, 미남침례회한인총회 남가주 지방회

“ITW·미주장신대 해외선교지에 현지인 리더 세운다”

현지 리더 육성 위한 온라인 과정 100% 영어 강의 ITW 수업료 전액 지원

“해외한인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바로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ITW는 미주장신대와 협력해 한인선교사들이 일평생을 바친 선교지에 현지인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ITW(대표 정현호 목사, Institute of Tree of Wisdom)와 미주장로회신학대(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오는 9월 1일부터 전세계 한인선교사들과 협력해 현지인 리더 양성을 위한 온라인 신학과정을 제공한다.

총 40과목, 120학점으로 구성된 신학 과정은 8학기 동안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ITW와 미주장신대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교과 과정은 모두 영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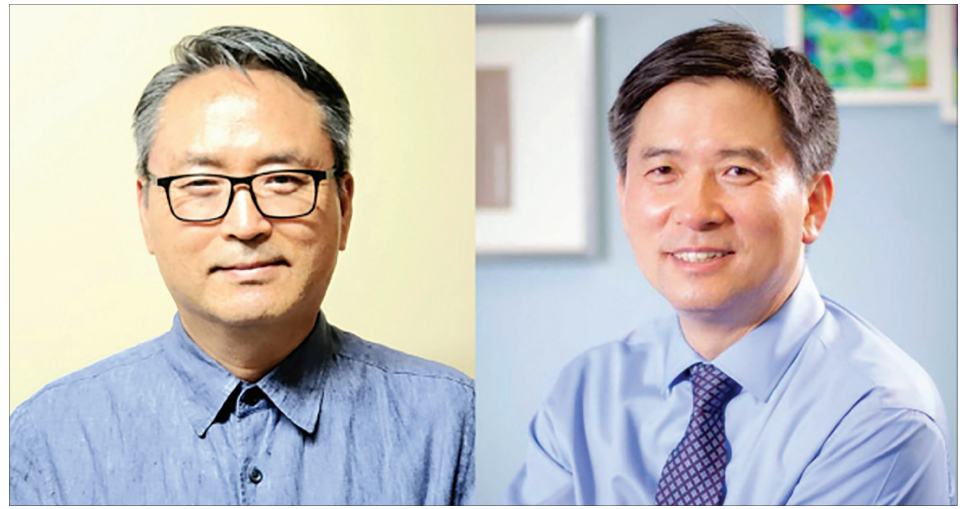
진행되며 교수진은 미주 한인인 비롯해 미국, 노르웨이, 케냐, 중국, 스웨덴 국적을 가진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수준 높은 신학 과정임에도 수업료가 무료라는 점이다. 이는 세계 선교의 신학적 체계를 확립하고, 세계한인선교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ITW와 미주장신대의 의기투합으로 가능했다.

ITW는 재정 지원과 전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미주장신대는 학과 커리큘럼 구성, 교수진 운영, 강의 녹화 및 학사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ITW의 대표인 정현호 목사는 “그동안 전세계 한인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현지의 옥토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해 왔다”며 “미주장신대와 협력을 통해 전세계 현지인 리더들이 바른 신학과 복음 위에 세워져, 세계 선교의 무한한 확장과 전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명 총장은 “설립 45주년을 맞은 미주



ITW 대표 정현호 목사(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우)

장신대는 미주한인사회를 넘어 세계 선교에 공헌하는 선교적 신학교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선교지 현지 리더를 위한 신학 과정을 제공하며 신학과 선교의 현장을 연계하는 신학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한

다”고 밝혔다. 해외 한인 선교지 현지인 리더 신학과 정 등록을 위한 문외는 이메일 itw13353@gmail.com로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시의원, 시청 LGBT 깃발 발언했다 해임 압박



동성애 깃발. ©Unsplash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의원이 “시청에 LGBT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수치스러운 공격”이라고 발언했다가 해임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레즈노의 게리 브레데펠드(Garry Bredefeld) 시의원은 ‘아이위트니스 뉴스 47’(EyeWitness News 47)과의 인터뷰에서 “시청 밖에 LGBT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미국 정부와 시청의 깃대에는 캘리포니아주 및 프레즈노시 깃발만 게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깃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문을 일으킨 자’, ‘만국의 쿼어’ 등으로 부를 수 있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신은 동성애자를 반대하고 있군요’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사실은 당신이 기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했었다”고 말했다.

프라이드기 게양식에서 프레즈노에 위치한 빅레드 교회(Big Red Church)의 레이건 베이커

(Ragan Baker) 목사는 “퀴어 원(queer one), 오 퀴어링 원(queering one)이며, 선 밖으로 떨어진 선물들을 드러내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에 브레데펠드 시의원은 주일 아침 트윗에서 “베이커 목사가 프라이드기 게양 행사에서 바친 기도를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수치스러운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종류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레데펠드 시의원의 최근 발언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16일 오후 그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한 청원이 현재 거의 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강혜진 기자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 “기독교 문학 산책” 출간

수익금 아이티와 수리남 기독 학교 건립에 사용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기독교 문학 산책”을 출간했다.

“기독교 문학 산책”은 저자가 기독 언론을 통해 연재했던 칼럼을 모은 책으로 세계 명작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기독교적 안목으로 해석했다. 판매 수익금은 아이티와 수리남 아동을 위한 교육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와 수리남에 학교와 고아원 교육 시설 등 기독교 학교 건립 비전을 갖고 있다. 기독교 학교의 모델은 거창 고등학교와 부산 해광 고등학교다. 강 목사는 두 학교의 탁월한 교육 정신과 활발한 학원 선교 활동을 아이티와 수리남에 건립될 기독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 목사는 건축비 부담이 적은 아이티 소망 학교에 교회 건축은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적 판매 수익금이 5만불 정도 축적되면 아이티와 수리남의 학교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비전을 나눌 계획이며 수리남 고아원에 교회당 건축도 시작할 계획이다.

강태광 목사는 또 아이티와 수리남 교육 사업을 위해 ‘2만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책 2만권 판매를 통해 2만 명에



게 아이티와 수리남의 교육사역 비전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목사는 “학교와 교회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인 교회와 사회, 단체에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한편 강태광 목사는 7월 24일 신간 북콘서트 및 출판 감사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난민과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현수 목사 “북한 동포들 모두 포로로 잡혀 있어”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6월 27일~7월 1일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복음통일 컨퍼런스(제28차 북한구원 기도성회)'가 열렸다. 셋째날인 29일 오후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복음통일 준비가 최우선입니다'(행 1:6~8)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의 머릿 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음을 말했다”며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러시아를 보면 기독교계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유례없는 기독교 국가를 이뤘지만, 전도하지 않음으로 훗날 불세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당의 종주국이 되어 기독교인을 포함한 6천 만 명을 숙청시켰다”고 했다.



에스더기도운동 '복음통일 컨퍼런스'의 셋째날인 29일, 임현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어 “이것이 중국을 비롯해 북한까지 이르게 되면서 우리민족이 대략 800만 명이 죽었다”며 “북선을 타고 남한으로 온 사람들 다시 돌려 보냄으로 생사를 알 수 없고, 한국으로 온 모자가 굶어서 죽는 일도 있었다. 우리의 무관심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다. 현

재 국군 포로와 남북 어부, 잡혀간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고 있는 인원 수만 20명이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목사는 “북한에서 고생해서 온 탈북민을 환영하기보다 무시하고, 이등 국민 취급하며,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남한에선 취직도

잘 안 되는 등 많은 문제로 5~6천 명의 탈북민들이 해외로 나가 있다”고 했다.

임 목사는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들(탈북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 동포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기에 북한을 살리는 운동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며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죄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저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전도와 선교이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강혜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미래가 밝은 세 가지 이유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27일 저녁 8시 제주시 필리플러호텔 컨퍼런스홀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안중배 회장 ©국제미래학회

컨퍼런스에서는 안중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회의 미래 준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안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블랙스완이 던진 재도약의 기회로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회장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는 공동체적 욕구가 강해지고 가치 지향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전에 이윤 추구를 공공연히 강조했던 기업의 목표가 ESG(자연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이 구현되면서 인공지능 메타버스가 주력이 되고 있다”며 “이는 핵심 원리인 디지털에 의해 구현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으로 전기적 신호가 켜져서(On) 빛이 들어 온 상태를 1로 표현하고, 전기적 신호가 꺼진(Off) 어둠의 상태를 0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라는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을 전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모든 것의 창조의 원천으로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이처럼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과 교회가 과거와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더욱 소명을 갖고 실현케 하는 핵심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인재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 역량이 창조성, 개성, 인성, 영성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며 “창조성, 개성, 인성, 영성은 성경적·기독교적 인물의 핵심 특성이다. 한국교회가 청년과 다음세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성경적·기독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면 교회는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되고 더욱 많은 청년과 다음세대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또 “한국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를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2의 종교개혁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복음과 예수 중심의 기독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김태희 목사, 코헨대 신학박사학위 취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목총회(총회장 김국경 목사) 소속 김태희 목사의 '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감사예배'가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렸다.

김태희 목사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 평신도교육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Th. M)에 이어 이번에 신학박사(Th. D)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성령에 대한 벨킴의 이해 연구'이다.

이 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일선교대학원(심화과정), 장로회신학대학원(신학박사)을 수료했다. 바흐솔리스텐서울 합창단 단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남성중장단 부지휘자, 자양교회 찬양대와 넉넉한교회 찬양대 지휘로 섬겼으며, 예장합동선목 중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희 박사(합동선목 부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에서 김국경 목사



코헨대 국제총장 손매남 박사(우측)이 김태희 박사(좌측)에 학위패와 메달을 전달했다.

(합동선목 총회장)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사 50: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2부 축하행사에서는 김태희 박사의 약력 소개 후 미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손매남 박사(한국상담개발원 원장)가 김태희 박사에게 학위패와 메달을 전달했다.

김태희 박사는 답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격려, 지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2022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온캠퍼스, 라이브 ZOOM, 녹화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수강 가능

수강신청기간 | 8.1-8.5
개강일 | 8.29

본교 학위과정

- | 학사과정(신학/사회복지학/글로벌경영학/가정상담학)
- | 석사과정(교역학/교역학 원목과정/상담심리학/선교학/결혼과 가족 치료)
- | 박사과정(선교학/선교학철학)
- | *교육학 학사, 전문코칭학 석사 과정(2022년 가을학기 개설 예정)

본교의 비전과 특징

-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 이론과 실제, 전공 분야와 현장 경험을 통합하는 역량을 갖춘 교수진
- |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 | 현역 및 재향 군인 학자금 및 재정 지원
-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 |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특히 목사, 선교사 장학금 지원)



Tel. 562.926.1023
 Fax. 562.926.1025
 www.ptsa.edu

본교 인가기관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일 후, 北 사회 각 영역에 기독교 가치관 전문인 세워야”

예장 합동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 발기인예배 및 토론회

예장 합동 총회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 발기인예배 및 토론회가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월 30일 오후 서울 사당동 총신대 주기철기념홀에서 개최됐다.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은 합동 총회 소속 통일·북한선교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적 준비를 통한 통일목회와 북한선교 사역을 위해 연합한 단체로, 향후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보수하며 복음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발기인으로 이날까지 74인이 참여했다.

이날 축사한 이재서 총신대 총장은 “총신대는 통일교육 중심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저는 학교에 통일개발대학원을 세웠고, 학교에는 현재 평화통일연구소와 서울통일교육센터도 설립돼 통일을 학문적·실질적으로 준비할 인재 양성과 대

사회적 연결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합동 교단이 통일 준비에 앞장서야 한다. 평양에서 시작한 총신대는 통일을 대비해 시대적 사명감으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김찬관 목사(석수교회, 전 GMS 이사장)와 김종길 목사(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실무협의회 회장)도 축사했다. 1부 예배는 이병철 목사(춘천주향교회) 사회로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권능 목사(인천한나라운교회)의 기도, 전남도회 통일선교위원장 김효민 목사(광주봉선중앙교회)의 설교, 이요한 선교사(북한사역글로벌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축도 등이 진행됐다.

2부 토론회는 GMS 북한지역위원장 정구재 목사(강일교회) 사회로 하광민 교수(총신대)가 ‘월남민 목회로 살펴본 합동 교단의 통일선교와 목회’, 이빌립 목사(열방성교회)가 ‘탈북민 정착과 돌봄을 위한 통일목회와 선교’, 조기연 교수(ACTS 북한연구원장)가 ‘한



기념촬영 모습.

국교회의 연합적 통일선교운동 고찰과 합동 교단 통일선교정책에 대한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은 김재호 목사(수레바퀴북한선교회 회장), 황문규 목사(수영로교회 통일비전공동체), 이수봉 목사(선교통일한국협의회 사

무총장)가 맡았다. 3부에서는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회장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발기 취지문을 토대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심기도로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기성 총회, 신뢰도·영향력 등 5가지 분야 ‘1위’ 만들 것”

기성 김주현 총회장, 취임 한 달 맞아 기자간담회



김주현 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성결성 회복’을 의미한다. 성결교회를 성결교회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116년차 총회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중요한 일을 꼭 하고자 한다. 임기 1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총회장으로서 중요한 흐름을 세우고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리더 역할을 감당하겠다”며 “나아가 창립 120주년이 되는 2027년을 목표로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해, 130주년에 그 꿈을 현실로 맞이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 ‘장·감·상’의 역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결교회가 세계 교회에 우뚝 서고, 한국교회 ‘1등 교단’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교단 신뢰도 △목회 만족도 △교육 현대화 △행정 효율화 △사회 영향력 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교단 신뢰도 1위’에 대해선 “지역 친화적 교회’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교단의 70%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를 ‘지역 친화적인 선교적 교회’ 혹은 ‘이웃과 함께하는 강소형 교회’로 세워갈 것”이라며 “성결교회가 지역사회 자녀들에게 열린 공간, 학습 공간, 회심 공간이 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목회 만족도 1위’와 관련해선 “목회자 개인의 최고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 기반’ 목회교청과 네트워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체계적 자녀 장학 지원을 위해 교단 내 각 장학재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보겠다. 무엇보다 은퇴 목회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적어도 은퇴 후 공무원 수준의 연금 지급과 법정 최저생계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사회 영향력 1위’에 관해선 “한국 사회 전반에 성결교회에 대한 위상이 강화되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과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며 “노인화 주기에 맞춘 시설과 시스템 구축, 일하는 노인 공동체, 금융 사역, 실버 세대 신앙과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원가 주택 공급 등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16년차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성결성 회복’을 위해 이날 열린 성결학술제를 비롯해 10월 목회자 콘퍼런스, 9월과 12월, 내년 4월 등 3차례로 나눠 열리는 평신도 새벽 성결인 신앙대회, 성결복음 확산을 위한 총력전대회 등을 실시한다.

또 교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 2회 차세대 리더십 대상 ‘정책 포럼’, ‘성결 유튜브 방송국’ 개국 등을 진행한다.

이대웅 기자

CCC 전통의 ‘백문일답’, 3년 만에 ‘대면’으로

현장 여름수련회 국내외 7천여 명 참가… 단기선교도 재개

한국CCC(대표 박성민 목사)가 3년 만에 오프라인 집회를 포함한 전국 수련회를 개최했다. CCC는 27일부터 29일까지 ‘Loving GOD, Loving MYSELF’(막 8:35)라는 주제로 2022 CCC 전국 대학생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충남 공주 에터미 오롯 비전홀에서 전체특강과 박람회, 저녁집회 등을 진행하고, 전국 28개 현장에서 각 지구 및 광역별로 교육 및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련회’ 콘셉트로 열렸다.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아직 남은 만큼, 먼저는 전국 40개 지구를 3분할해 3일간 돌아가며 공주 에터미 오롯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이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한국CCC 40개 지구 6천여 명의 대학생과 14개국 8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과 해외 총 7천여 명이 참여했다.

송경호 기자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ACU)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국제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O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연락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美 친낙태 측, 교회 및 임신센터 공격... '분노의 여름' 경고

연방대법원 판결 전후로
방화와 낙서 등 잇달아

미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옹호론자들이 교회와 친생명 임신센터 등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으며 '분노의 여름'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5월 2일 폴리티코(Politico)에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된 후 벌어지고 있는 공격 목록의 최신판을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레스톤에 위치한 세인트존뉴맨가톨릭성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친낙태운동가들에 의해 파손된 최초의 교회다.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은 6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주일 오전 6시 45분 가톨릭 성당의 긴급전화를 받았고, 교회 입구 표지판에 스프레이로 적은 낙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낙서로 손상된 건물 뒤쪽에서 3곳의 낙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스프레이로 한 낙서는 모두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DC 지역 폭스뉴스 계열사인 'Fox 5 DC'가 SNS에 공유한 사진에는 교회 표지판 바닥에 스프레이로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낙서가 그려져 있다. 다른 교회 건물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선언하는 낙서와 외설적인 낙서가 있었고, 이후 교회 측은 이를 지웠다.

지난 6월 25일 콜로라도주 롱몬트에 위



린치버그에 위치한 블루리지 임신센터. ©페이스북

치한 임신센터인 '라이프 초이스'(Life Choices)에서는 이른 아침 화재가 발생했다. 롱몬트시 공공안전국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오전 3시 17분, 롱몬트의 20 마운틴 뷰 예비뉴에 위치한 라이프 초이스에서 화재가 보고됐다. 건물은 화재와 심한 연기로 가득찼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건물 전면이 검은색으로 훼손된 상태였다"고 했다.

롱몬트시는 "이 화재는 방화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해 사진을 올렸다.

건물 측면에 그려진 낙서에는 "낙태가 안전하지 않으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문구와 함께 아나키스트 운동의 상징이 포함됐다. 시설 앞 보도도 '신체 금지'라는 문구



세인트존뉴맨가톨릭성당 벽에 그려진 낙서. ©트위터

로 훼손됐고 그 바로 위 건물 외벽에 또 다른 아나키스트 운동의 상징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블루리지 임신센터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기물이 파손된 최초의 친생명 임신센터가 됐다. 린치버그경찰서는 6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밤새 블루리지임신센터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와 기물 파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착 당시 경찰관들은 건물에 낙서가 칠해져 있고 여러 개의 창문이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기물 파손 사진에는 시설 앞 바닥에 스프레이로 '제인의 복수'(Jane's Reveng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신을 '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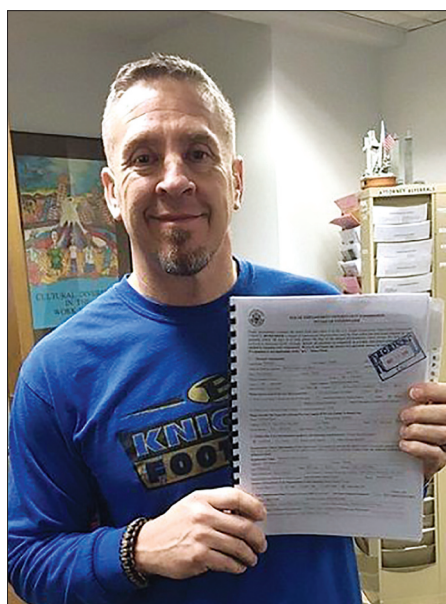
복수'라고 밝힌 친낙태 지지자들은 대법원 의견 초안이 유출된 후 친생명 임신센터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6월 14일 성명에서 단체를 해체하고 오프 시즌을 선언한 바 있다.

블루리지 임신센터 밖의 보안 카메라에 찍인 사진에는 6월 25일 오전 1시 21분 복면을 한 4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건물 측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투표 블루 LOL'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센터 앞 바닥에는 붉은 페인트로 "낙태가 안전하지 않으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진영 기자

美 연방대법원, 브레머튼고교 풋볼 코치 손 들어줘

"경기 후 공개 기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



지난 2015년 12월 브레머튼 교육구를 상대로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낸 조셉 케네디 코치. ©리버티인스티튜트 제공

미 연방대법원은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정교분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풋볼 코치 조셉 케네디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7일 6대 3으로 그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지역 교육 당국은 1963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주관행사서 기도를 금지한 판결을 근거로 "경기 이후 공개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그 판례를 뒤집

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명의 대법관들은 "한 정부 기관이 짧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종교 의식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려 했다"며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종교·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헌법과 전통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 종교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 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2008년부터 7년 동안 매주 금요일 경기가 끝난 후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단체로 기도하는 것

을 팀의 전통으로 만들어 왔다.

해군에서 20년간 복무한 케네디 코치는 원래 매 게임 후 50야드 선에서 혼자 기도해 왔는데, 여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역 라이벌 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과 같은 것이었다"면서 "매 게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브레머튼 교육구는 브레머튼고등학교로 서한을 보내 이 기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경기를 마친 뒤에도 케네디 코치는 학생들과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자 상대팀 선수들과 학부모, 응원단까지 모두 운동장으로 내려와 동참했다.

그날 케네디 코치는 "주님, 이 학생들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라이벌로 경쟁하지만, 형제일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는 "양팀이 함께 운동장에 내려와 기도에 동참하는 장면을 보는데, 믿을 수 없었다"면서 감격스러워했다.

그러나 에런 리벨 교육감은 "케네디 코치의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풋볼 지도자들은 공개 기도 행사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코치가 기도를 계속하자, 결국 그에게 정적 처분을 내렸다.

송경호 기자

美 '낙태 합법화' 판례 폐기, 세계 지도자들 입장 표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 49년 만에 이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저마다 논평을 냈다.

6월 24일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정부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CNN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은 낙태권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6개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건부 규정을 담은 낙태금지법을 이미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결정은 당분간 최대 정치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즉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대법원의 결정이 슬프다.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도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낙태는 모든 여성들의 기본권이며,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낙태권을 잃을 수 있는 수백 만의 미국 여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낙태 옹호' 낸시 펠로시, 교황과 만남 후 영성체 받아

NYT, 성베드로대성당
미사 참석자 주장 보도

로마가톨릭 대주교로부터 영성체 참여를 거부당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6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 이후 영성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한 예배 참석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베드로대성당에서 진행된 교황의 미사에 참석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 사제로부터 영성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티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남편 폴 펠로시가 대성당에서 프란치스

코 교황을 맞이하는 사진을 공개했으나, 크리스천포스트(CP)의 논평 요청에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살바도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펠로시 의장 앞으로 "낙태권 옹호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언급하거나 영성체를 받는 것을 삼가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로마가톨릭교회 교회법을 인용해 "명백한 중죄를 완고하게 고집하는 자는 영성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펠로시는 낙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가톨릭교회는 1세기부

터 모든 낙태의 도덕적 해악을 확증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29일 미사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계속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같은 날 새로 봉헌된 대주교들에게는 "포용적이 되고, 무익한 토론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경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받기지만, 결국 정죄하여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작년 9월에는 "누구에게도 성찬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도 "영성체 중 낙태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일부러 만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주교들 사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가톨릭 정치인들의 영성체 참여를 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법원 의견문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김진영 기자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행 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안내 : 점심/저녁 개최 교회 제공, 인근숙박정보등 상세 안내는 공식홈페이지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차 대회 집회일정표

	15일(월) 새벽기도회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09:00~10:20 전체주제 오전강의(1)		탈북신학생 간중(1): 침례신(2)	조평세 박사 "링컨의 노예 해방과 한반도 통일"	강석진 목사 "근현대사속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일 비전"	윤학렬 감독 메타버스! "영상을 통한 복음통일"
10:30~11:50 오전강의(2)		탈북신학생 간중(2): 감신/성결신	특별발언대: 영어권과 한.미관계	김요한 목사 "북한상황하에서 본성경적통일선교 신학과 전략"	미주통일연합 기도회활동소개: 시카고 & D.C
12:00~14:50	오찬 다함께 휴식				
15:00~16:20 오후강의(3)	환영/ 등록	탈북신학생 간중(3): 강신/총신	박대현 대표 "잘 정착된 북한 청년들이 대안일 수 있다"	김학송 목사 "북한농업은 물이 답이다"	김연영 선생 "10대는 북에서, 20대는 남에서"
16:30~17:00		교단별 격려시간	분야별워십 & Q n A	분야별워십 & Q n A	분야별워십 & Q n A
17:10~18:50	만찬 다함께				
19:00~21:00 찬양과 저녁집회	개회집회: 임현수목사 "오직 복음통일 만이 답입니다" (행 1:6-8)	저녁집회: 고명진목사 "오직 복음으로" (막 1:1)	저녁집회: 오창희목사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습니다" (단 9:1-6, 19)	저녁집회: 강동완교수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겔 34:16)	폐회집회: 통일공모사상/ 연합기도회

2022년 복음통일상 공모전

세계의 최고 상으로 노벨상이 있다. 이시대 최고의 뉴스가 될 남북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상이 필요하다. 비록 작지만 통일의 각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래처럼 3가지 분야의 우수작품들을 이번 3차대회를 통해서 공모하여 시상하려고 한다.

주제: "내일 통일이 된다면", "왜 복음통일인가",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 "복음통일만이 답이다"

상금: 아래 각 분야별로 각 \$1000이며 대회 마지막 날(19일 금) 참석자들의 투표로 발표함.

- 1) 복음통일 포스터: 크기는 자유이며 통일의 희망과 통일된 감동을 그리면 된다.
- 2) 복음통일 기도문: A4 용지 2/3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감동의 기도문
- 3) 복음통일 동영상(2~3분내): 본인의 연설 혹은 통일각성 제작동영상(형식은 자유)

위의 직접 창작한 그림과 글과 동영상을 아래 연락처로 2022년 8월 3일(소인날짜-한국),13일(소인날짜-미국)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주소: (한국)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2 수정타운(12동-301호) 받는이: 기드온선교회

(미국) 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받는사람: Houston Hanbit (3RD Award)

문의: gmbwusa@gideonbrothers.org / gmbwkorea@naver.com (기도문과 동영상 이메일로 접수)

· 상금 기부 환영: 위의 상금에 본인의 이름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수여 가능하오니 복음통일의 열정과 비전을 담은 분들(교회들)의 귀한 참여를 바랍니다.

· 위 대회 진행을 위한 기부헌금도 받습니다. (한국) 신한은행 100-032-117976(기드온동족선교회), (미국) 체크: 16825 48th Ave. #345, Lynnwood, WA 98037 Pay Order to: GBMW / (해외모두) PayPal: @swp2019 (모든 후원헌금은 세금공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기드온동족선교회 /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미주기독일보 YouTube LIVESTREA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자,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영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단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 &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족동부유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8: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화-금)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유족동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족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3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도)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국장로교 총회서 “이스라엘은 인종차별 국가” 선언



PCUSA 제219회 총회 참석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페이스북

“유대인 혐오” “근거 제시 안 돼” 반발도

미국장로교(PCUSA) 총회가 지난 6월 28일 이스라엘을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국가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 ‘INT-02’로 알려진 이 결의안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서 국제참여위원회(International Engagement Committee)가 채택한 중동 정책 가운데 하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총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끝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관한 이스라엘의 법률, 정책 및 관행의 통치 체계가 인종차별의 국제적·법적 정의를 충족한다”는 수정안으로 찬성 28표, 반대 3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이들은 이 결의안에 대해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나서 평화로운 화해가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이스라엘 정책을 ‘심각한 불의, 만연한 고통,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과 비교하고 있다. 또 신분에 따라 한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집단에 열등한 지위를 부여해 차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매년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불의는 계속된다. 토지는 몰수되고, 집은 철거되며, 이동의 자유는 제한된다.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이 정착촌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분리 장벽이 연결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별도의 보호구역 및 빈민가에 거주하도록 가두는 장벽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노동, 교육, 임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국제법에 따라 부여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제한 또는 거부된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의 토론 대부분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서던뉴지시노회의 니콜 윌킨슨은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있는 미국의 역사적 시각이나 관점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상황화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안건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동 평화를 위한 장로교’는 성명을 내고 “국제참여위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반이스라엘 활동을 해 온 이들의 목소리만 들렸다”며 “결의안 지지자들은 개회사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에서 이스라엘은 인종차별 국가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다’고 언급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원주민에 살해당한 미국 선교사... 순교자 기념비에 이름 새겨

초교과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VOM)’가 2018년 미전도종족 선교 도중 목숨을 잃은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을 순교자 기념비에 새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년 선교사 존 앨런 차우(John Allen Chau)는 인도의 노스 센티널 섬에 도착해 원주민을 전도하려다 이를 뒤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향년 26세였다.

이달 29일 순교자의 소리는 미국 오를라호마주 바틀즈빌에 위치한 본부에 전시된 18.3미터(60피트) 길이의 화강암 순교자 기념비에 그의 이름을 추가한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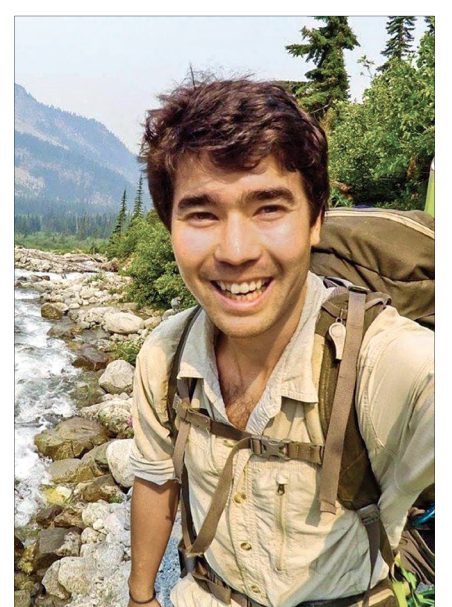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매년 6월 29일을 기독교 순교자의 날이자, 사도 바울 순교 기념일로 지켜왔다.

VOM에 따르면 차우는 오를라호마주 오렐 로버츠 대학을 졸업한 뒤, 한 어선의 도움을 받아 2018년 11월 15일 지구상에 가장 고립된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널족과 처음 대면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부족의 한 소년은 차우가 들고 있던 성경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날 저녁, 선교사가 쓴 일기에는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 만일 죽는다면 누가 제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나를 쏜 소년)과 저를 죽이려는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절 죽이는 데 성공한대도 그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틀 뒤인 17일 아침, 섬에 차우를 내려준 어부들은 부족들이 차우의 시신을 매장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인도 당국은 미전도종족을 전도하려 한 그의 선교가 “잘못된 모험”이라며 비



지난 2018년 인도의 노스 센티널 섬 원주민을 전도 하려다 살해당한 20대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차우 ©순교자의소리 제공

판했고, 차우의 죽음은 미전도종족 선교단체에 대한 많은 조사를 불러일으켰다.

반면, VOM 라디오의 진행자인 토드 넬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차우는 그리스도와 같은 연민을 가졌고, 다방면의 선교 훈련과 준비를 거쳤으며,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넬러는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 세상에 가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 분명히 그 뛰어난 예가 존 차우”라고 덧붙였다.

넬러는 차우 선교사에 대해 “복음의 가치와 센티널 부족들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가진 영원한 중요성을 이해했다”며 “그는 (목숨을 잃는) 온당한 거래마저 고려한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김유진 기자

나이지리아 카두나 · 에도주 가톨릭 신부, 괴한 공격 받고 사망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이지리아 현지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나이지리아 카두나(Kaduna)주와 에도(Edo)주에서 가톨릭 사제 2명이 괴한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은 카두나대교구의 비투스 보로고 신부와 아우치교구의 크리스토퍼 오디아 신부로 확인됐다.

카두나대교구장은 가톨릭뉴스 에이전시(Catholic News Agency)에 성명을 내고 “보로고 신부는 23일 카두나-카치아로드에 있는 농장에서 습격을 당했으며, 오디아 신부는 에도주 이카빅고 지역의 성마카엘가톨릭교회에서 납치됐다. 두 사람은 주일 저녁 살해됐다”고 전했다.

50세의 보로고 신부는 카투나주 폴리테크닉의 목사였고, 42세의 오디아 신부는 성마카엘성당의 관리자이자 자부 지역 성필립가톨릭세컨더리스쿨의 교장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1년에만 최소 4,650명, 2022년 첫 3개월 동안에만 거의 900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 가톨릭뉴스 에이전시는 “나이지리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에는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나이지리아 북부의 가톨릭교구를 습격해 소코토교구의 스티븐 오자파와 신부와 카치나주 성페트라가톨릭교회의 올리버 옥파라와 신부를 비롯해 소년 2명을 납치했다.

같은 달 보르노주에서 이슬람 풀라니 목동 또는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역(ISWAP)과 연계된 급진 이슬람 무장세력이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 최소 8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이슬람국가(IS)는 2월 미국 특수부대가 시리아에서 지도자를 살해한 데 대한 복수로, 보르노주에서 약 20명의 기독교인 민간인을 처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S와 연계된 매체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이자 두 번째 칼리프 지도자) 아부 이브라힘 알 하시미 알 쿠라시를 살해한 데 대한 복수”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민간인을 처형하는 모습이 담겼다.

강해진 기자

호주 기독교인 인구, 처음으로 50% 이하 기록



호주 아델레이드 북쪽에 위치한 성베드로성당.

무종교인은 크게 증가 무신론 · 이민자 영향

호주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ABC방송 등은 호주 통계청(ABS)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인구 2,540만 명 가운데 43.9%만이 자신이 개신교 또는 가톨릭교인이라고 했다.

이 수치는 5년 전보다 8.2%p 감소한 것으로, 호주 인구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ABC방송은 전했다.

호주는 1966년 조사까지만 해도 90% 이상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 중심 문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호주인의 비율은 38.9%로, 5년 전보다 8.8% 늘었다.

강해진 기자

ABC는 “무신론과 세속적인 믿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민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교(3.2%)와 힌두교(2.7%)”라고 설명했다.

이민의 나라답게 호주인의 4분의 1 이상은 국외에서 태어났으며, 거의 절반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태어난 호주인의 출신국은 영국이 927,4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673,352명)와 중국(549,618명), 뉴질랜드(530,492명) 순이었다. 인도 출신 호주인의 수는 5년 전에는 중국과 뉴질랜드 출신보다 적었지만 이번엔 2위로 올라섰다.

호주 내 동성결혼은 2만 4천 건이었다. 호주는 2018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구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 실시됐으며, 5가구 중 4가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했다. 호주 통계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OC제물 주일 9부 예배 오전 8:30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7: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2351 W. Gungahpeppa Ave., Folsom, CA 95630
195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초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찬양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여청년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6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20 중고등부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남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려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자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령일: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60

“마지막 때를 맞은 선교부흥에 참여하자”

이번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
에 7월 4일부터 7일까지 수도
인 워싱턴 DC에서 인터콥 선교
회 북미주 선교캠프가 키즈부
터 시니어 목회자까지 전 세대
1,800여 명이 참가하여 은혜중
에 열렸다. 미국의 수도에서 열
방을 위한 선교대회가 열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필자는 매년 이 대회에 참가
하면서 역시 지난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한국 교계의 한 분이 말한
대로 인터콥은 선교 운동의 최
전방에서 있다고 본다. 지난 2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세계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주춤할 때에도 인터콥 선교회
의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 운동
은 더욱 크게 확장되었다.

국제 다민족 교회들의 비전
스쿨 참가가 확대되면서 지금까
지 84개 국가에서 230개의 비전
스쿨이 열렸다. 이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운동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밖에 더할 고
백이 없다. 지난 한 해 한국 교
계 전체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
사 통계가 400명 정도인데 인터
콥이 파송한 장기 선교사의 수
가 134명이었다. 약 30% 이상
을 한 선교단체에서 이루어 졌
다. 필자가 이를 말한 이유는 자
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큰 사명
의 부담을 느껴서이다.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움츠러들면서 많
은 교회까지 명달아 예배와 선
교의 끈을 놓고 말았다. 필자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24장 7
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엔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신 부분이다. 그런데
kiv 영어 성경엔 분명히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범람한다 했다.
헬라어 원어 성경도 역병(전염
병)이 있는데 어찌하여 번역본
들엔 역병이 빠져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역병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알고 대
처하는 이들은 지금 시대의 상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황이 마지막 때의 세상 모습임
을 보고 주님이 곧 오심을 대비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 마지
막 때엔 자기 믿음을 굳건히 하
고 임박한 심판의 때가 곧 오게
됨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
회가 보여야 할 참모습이다.

몇 년 전 한국의 대통령이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자리에
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
안을 갖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
며 교회도 성도들이 마음의 평
안을 찾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
였다. 필자는 만약 내가 그 자리
에 있었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영혼
구원 즉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 전장을 하는 곳이라는 말
을 할 수 있었을까를 수없이 자
문해 보았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전
쟁을 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
는 최전방 선교사를 향해 타종
교도 동일하게 존중함을 말하
며 지나치다하며 비난한다. 정
말 가슴 아픈 것은 선교에 마음
을 열지 못한 성도와 교회까지
도 세상과 동일한 비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여도 온 민족을 향한 하
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보자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이 참 진리이
신 것, 그분을 통해야만이 구원
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은 목숨을 건 교회의 사명이어
야 한다.

지금 그 사명을 인터콥 선교
회는 비난과 냉대속에서 감당
해 나가고 있음을 감사한다.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두 노인 | 레프 톨스토이

두 노인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두 노인
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핌과 엘리
사라는 노인입니다. 예핌은 술 담
배를 하지 않을뿐더러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는 노인입
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보드카를
좋아하고 늘 끊어야지 맹세하면서도
코담배를 끊지 못하고 노래 부
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노인이었습
니다. 이미 순례를 떠났어야 했지
만 예핌 때문에 출발이 늦춰졌습
니다. 예핌은 늘 많은 일을 핑계로 성
지순례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영혼보다 더 소
중한 것은 없네. 집안 일 보다 영
혼을 살피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은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두
노인은 경비로 각자 100루블씩 준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00루블 준비가 쉽지 않아 가족들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지 수 주일이 지난
어느 뜨거운 낮이었습니다. 엘리사
가 말했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가
세” 예핌이 “난 괜찮으니 마시고 오
게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
리사가 “그럼 저 농가에서 물 얻어마
시고 뒤따라 갈 테니 자네는 계속 걷
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핌
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엘리사는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들어가 보니
가족 모두가 죽기 직전이었습니
다.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었
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를 다 팔았
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온 가
족이 영양실조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도 들어 있었습니다. 엘
리사가 그들을 보니 맘이 너무 아
팠습니다.

엘리사는 물을 떠다 식구들에
게 주고 빵도 조금씩 먹게 했습니
다. 그리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
니다. 빨리 예핌을 따라가야 한다
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을 두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며 사흘을 보냈습
니다. 기운을 차린 주인에게 그 집
형편을 듣고 엘리사는 고민이 더 많
아졌습니다. 큰 맘 먹고 성지순례
를 시작했는데 이 가족을 만나서
성지 순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고민하던 엘리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자를 찾아 저당 잡
힌 옥수수 밭을 도로 찾아주었습
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쫄소와

니다. 생각해 보니 엘리사가 물을
마시려 들어갔던 집이었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그 집 가족
들은 예핌을 반가이 맞아 주고 식
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나올 동안 머물면서 자
신들에게 해 주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자가 받았던 사랑을
추억하며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핌은 그 가족들에게
엘리사의 생활을 들으면서 예루살
렘에서 보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생
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사
의 섬김과 나눔을 하나님께서 인정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핌은 자신이 예루살렘에는 먼
저 갔지만 엘리사가 자신보다 탁월
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뿐
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실천했다는 것도 알았고, 예
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있던
엘리사의 모습은 공명한 허상이 아
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핌이 집에 돌아와 보니 걱정했
던 것처럼 집안일이 밀려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
핌은 엘리사의 행동과 그것을 받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핌
은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오다
가 자네 얘길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이 예루살렘까지 다
녀왔던군.” 라고 말했습니다. 예핌
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의미 있는 성
지 순례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고뇌하는 작가 톨스토이
의 소설 <두 노인>의 줄거리입니
다. 톨스토이는 신앙인으로 진리
를 찾는 여정에 몰두합니다. <두 노
인>에도 진리를 찾는 톨스토이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바른 경건이 무엇일까요?
평생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술도 마
시지 않는 모범생이었지만 현실에
매여 사는 예핌의 경건에 아쉬움을
봅니다. 예핌은 현실에 충실했지만
그의 성실함이 그의 경건을 무너뜨
리는 듯합니다.

둘째,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
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지순례
보다 어려운 집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
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현실 자각이 경건입니다. 예
핌은 친구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보
다 탁월함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바
로 인정합니다. 이 점이 성실한 예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짐수레와 밀가루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말도 사 주었습
니다. 그 집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
게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
니 100루블에서 17루블 정도가 남
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비용
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사는 예핌을 뒤따라 갈 경
비도 없었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
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왜 돌
아왔는지 궁금해 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길이 어긋나 예핌도
놓쳐버리고 돈도 모두 잃어버렸다.
순전히 내 탓이다. 걱정하지 말거
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한편 예핌은 엘리사가 뒤따라오
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계속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행인들에게 엘리사 인상착의
를 말하면서 친구 예핌을 찾는 한
편 성지 순례도 했습니다. 그는 다
른 순례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
렀던 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야고보
교회도 둘러보았습니다.

그 이른날 예핌은 순례자들과 함
계 성전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보고 깜짝 놀랐
습니다. 엘리사가 머리에 후광을
받으며 제단 앞에 팔을 벌리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엘
리사가 와 있었군!’ 예핌은 사람들
을 헤치고 앞으로 달려갔는데 엘리
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엘리사가 제단 아래에서 후광
을 받으며 서있는 것을 보고 뛰어
서 가보니 전날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예핌은 예루살렘에 6주 동안 머
물며 돈을 거의 다 쓰고 집으로 갔
습니다. 돌아가는 도중 어느 마을
어귀에서 한 소녀가 그를 보고 반
갑게 말했습니다. “순례자 할아버
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주무
시고 가세요.” 예핌은 순례자를 존
중하는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 집으
로 따라 가서 식사를 대접 받았습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코네티컷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외지역의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전쟁과 치유를 통한 선교확장(1)

열왕기하 5:1-14



서울성민교회 목사 장재효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BC853년쯤에 더 북쪽에 있는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 와서 무방비 상태였던 아람은 나라를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쓰셔서 앗수르에서 원정왔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도우심으로 구국공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했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앗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도록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적군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 당했을 것이고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방부장관 정도의 그의 위세는 왕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무엘상 17:47에 보면 '또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이 같고 참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왜 일으키고 누가 승리하게 되었나에 결과는 역사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랑끝 전술이라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악을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꿈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해군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음을 경고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위정자(爲政者)들과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서둘러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이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한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어질 때 이 나라는 이 시대의 복된 선교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치안은 물론 경제도 날이 갈수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이고 따라서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시대적 세계선교라는 복된 사명을 이미 주지(周知)시켜 오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부흥도 일으켜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정치가 퇴보하는 듯한 상황에 있음을 모두가 난감해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세상적 정치는 누가 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와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시대에 세계를 복음으로 제패(制覇)하며 인류복음화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 민족은 가장 복받은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대가운데 쓰임받고 더 잘 섬기게 하시는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생겨나서 살다가 죽어야 할 모든 사람들, 우리도 역사의 한페이지에 등장했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지, 그 다음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유념(留意)해서 천국 갈 자격 갖추기를 서두르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나아만을 통하여 앗수르를 물리치게 하시고 구국공신이 되게 하심으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되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쓰지 아니하시고 아람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원하시어 존속시키시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의 미그 전투기 130대, 탱크 600대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기습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머지않아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고 자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휴전상태로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북한으로부터 당하게되는 국지적인 행패로 인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서서 한국을 세계선교를 위한 뒷바라지의 필요에 따라 경제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며 음란방탕하라고 경제부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교

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확장 하라신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차례 아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의 날을 누리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조건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신앙생활이 해이하고 나태해질 적마다 하나님은 아람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앞세워 현실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람군대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며 회개하고 육신이 원했던 세상조건의 죄악된 근성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오로지 신앙인격 수양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인정받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해야겠다고 새출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아람나라를 이스라엘이 바로서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람나라를 귀하게 여겨 앗수르가 물리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상비(常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기세등등하고 천하를 장악한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며 교만을 생활의 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나라를 건져 구원하심을 망각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번방에 쳐들어갔고, 그곳을 약탈해 가면서 계집아이 하나를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

다. 그리고 나아만은 마치 전리품인양 그 아내에게 몸종으로 줍니다.

이 소녀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 몸종이 되었지만 신앙이 돈독한 아이였습니다. 원수의 장막에서 몸종노릇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해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이곳에 끌려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입장은 어찌되었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과 섭리가 어떤 것인가에 기도하며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국력으로서는 아람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약소국으로 침탈당해 왔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이 소녀를 통하여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토록 교만하여 우쭐대던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가며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그 집안에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장군의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했고 나아만 장군도 그 신체가 문둥병으로 끝장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왕에게 올라가서 소녀의 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소녀의 평소의 삶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경망한 모습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왔었다면 계집종의 한마디에 이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LA 미주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강준민 칼럼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지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삼상 2:3).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십니다(사 11:2).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3).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안다는 것,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선명하게 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호 4:6). 반면에 지식은 우리를 부요

케 합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잠 24:4). 베아코는 “아는 것이 힘이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갖게 됩니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라”(잠 24:5). 지식은 모든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벤 카슨은 “지식은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아는 만큼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합니다. 무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무지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반면에 지식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자랍니다.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을 아는 것이요, 지식의 원천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셋째,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유홍준 교수님은 그의 명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에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화재나 골동품 즉 예술작품은 아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그림을 아는 사람과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보고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것만큼 표현하게 됩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도 음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그 들은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넷째, 아는 만큼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을 부요케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사람을 키워야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얻게 됩니다. 아는 만큼 얻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국제선 여행기표를 구입할 때 그 안에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른다면 식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아는 만큼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별하게 되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선택을 잘하게 되고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속에 보배 같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1 변하는 맘(mom), 변하는 다음 세대

이 시대 엄마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지금도 그런 어머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MZ 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은 예전 베이비붐과 X 세대를 키우던 엄마와는 다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엄마들은 어떻게 진화하였을까요? 10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헬리콥터 맘' 이 되었습니다. 자녀 주변을 맴돕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통제, 관리, 참견하는 맘으로 둔갑하였습니다.
- 2) '캥거루 맘' 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완전 품에 끼고 삽니다. 보호하고 돌보는 마음은 아는데, 너무 감싸게 되었습니다.
- 3) '별똥 맘' 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갑자기 자녀를 놀라게 하고 사라지는 맘으로 변모했습니다.
- 4) '돼지 맘' 입니다. 똥똥해서 돼지 맘이 아닙니다. 입시정보에 해박합니다. 유명 학원 강사 정보를 압니다. 그러면서 주변 엄마들까지 진두지휘합니다.

- 5) '미니밴 맘(사커, 하키 맘) 입니다. 차로 자녀를 태워 주는데요. 단순한 라이딩이 아닙니다. 명문대 입학에 비해 과 활동(체육)을 위해 실어 나르는 맘입니다.
- 6) 'PD 맘' 입니다.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의 삶을 창작, 기획, 관리까지 다 하는 가이드 맘입니다.
- 7) '타이거 맘' 입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북유럽 스타일 스칸디나비아 맘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고, 스파르타식 강압적 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운 엄마들은 있었지만, 학업과 일상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 8) '앵그리 맘' 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분노합니다. 자녀의 매사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생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9) '매니저 맘' 입니다. 연예인 매니저처럼 자녀의 일과를 다 챙깁니다. 일일이 다 챙기는 맘이라 좋을 것 같지만, 자녀의 미래까지 다 매니저로 간섭합니다.
- 10) '카페 맘(아카데미 맘) 카페에 우아

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가입하여, 사교육 관련 정보를 나누는 맘입니다.

이런 다양한 맘들 속에 자라는 MZ 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내성적인 성격과 기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는 자기결정 장애를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1) 지식, 2) 정보, 3) 기술을 좀 더 쉽게 잘 습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보다 더 공부를 잘합니다. 관심 분야에 상당한 통찰력과 이해도도 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MZ 세대는 여러 부분이 저하 되어 있습니다.

- 1) 적응력, 순발력 저하
- 2) 자신감, 자존감이 저하
- 3) 개척정신, 창의력 저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강한 주도적 맘들 아래서 MZ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칠 내기가 쉽지 않게 길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도 이런 맘과 자녀가 등

장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요. 리브가 맘은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도면밀하게 가이드 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예에게 보복받지 않도록 아버지 이삭도 설득하고 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지만, 피신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이참에 결혼까지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은 예전에 있었고, 오늘날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듯합니다.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진유철 칼럼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즉시로 신분은 변화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와 영생의 하나님 자녀로 변합니다. 그러나 신분이 변했다고 삶이 금방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된장찌개를 좋아하던 삶이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삶으로 금방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진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며 바뀌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였고 복음과 믿음의 법을 깨달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7:21-24)

그런데도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과정들을 지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위대하고 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 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순종을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왕따가 되거나 억울함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깨닫고 사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여서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고, 피해를 할 것들을 피하고, 문제보다 내 마음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작아지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복음의 초월성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미주에 있는 목사님을 한 분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의 교회로부터 청빙 받아 가신 분이데 분이 이 조기 은퇴하시면서 미국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목회자들이 많지만, 가능하

면 미국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적인 것을 넘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에,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미국에 있었다고 다 초문화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시야를 넓혔던 목회자를 교회가 선호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옛날 어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타항에서 배우는 것이 비록 낮잠을 자더라도 고향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낫다.” 익숙한 환경에 평생 살면서 주어진 기독교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맨땅에 헤딩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에 좌충우돌하며 배우는

것이 많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도 가고, 세계대회에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류가 대세지만, 이는 한국에만 머물며 한류가 된 것이 아니라, 해외파들이 한국적인 것을 전 세계의 문화와 삶에 접목하여 생긴 현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미 말씀 안에서 문화와 인종,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어느 민족의 것이라고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갈 때는 벽안(파란 눈)의 종교라고 했지만, 지금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동양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타종교는 종교의식 속에 순례를 해야 할 메카

가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 사역하신 이스라엘도 성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생부터 복음은 탈지역, 탈문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입니다.

지난주, 영어를 사용하는 셀을 방문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앉아서 내내 영어로 소통하면서 주일예배 때 함께 들었던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는데, 한국어로 셀모임 하는 어느 셀보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일본어를 하는 일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교회에서 이미 우리는, 넘나드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일예배가 여러 언어로 통역되면서 다문화로 아우르는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영화에 ‘기생충’과 ‘중개인’이 있고, 클래식에 ‘임윤찬’이 있듯이, 세계 교회 안에 내일의 베델 리더십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은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내 삶의 갈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L은 하나

님의 세심한 손길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한 동료 중 하나다.

L은 자동차사업소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목탄(숯)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연료가 부족해서 트럭들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당은 자동차의 기관을 개조해서 숯이나 옥수수를 태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숯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작업반이 조직된 것이다.

L은 기존의 작업반장이 정년퇴직으로 물러나자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어 숯구이 막이 자리 잡은 산골로 이사했다. 이사한 산골은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깊은 산중에 있었다. 당시 도망자 신세였던 나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그가 일하는 산골로 피신을 가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전도팀을 여러 부류로 나누었는데, 특별 전도팀은 당과 정부, 보위부나 안 전부와 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도했고, 일반 전도팀은 일반인을 상대로 그리고 가정 전도팀은 각 가정을 상대로 전도했다.

L은 일반 전도팀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였다. 그런데 L은 특이하게도 호위총국에서 12년 동안 군 복무를 했었는데 실탄 자격을 한 번도 못해 봤다고 했다. 실탄 자격은 노농적위대(한국의 민방위군과 비슷한 서민들로 조직된 예비군)도 매년 하는 것이

어서 모두 의아해하는데, 그는 군 복무 12년 동안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불고기를 먹을 때 사용하는 숯만 구웠다는 것이다.

“아니 왜 숯을 군대에서 굶는 건가? 그런 일이라면 일반인한테 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자, L은 김정일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과 음식은 수입품을 제외하고 모두 호위총국 산하 군인들이 직접 만들고 재배한다고 했다. 이유는 그것이 특급 비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김정일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입고 사용하기에 그만 한 일도 특급 비밀에 속한다는 것인지,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모두 혀를 찼다. (계속)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헤민병원
새 생각, 새 의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 반지성주의 극복하고 복음을 드러내라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손성찬
조이북스 | 414쪽

기독교를 읽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 대화를 위한 지적 토대를 쌓도록 도와줄 기독교 교양서

위해 봉사하는데 복음이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 책은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목사라고 말하기 민망하고 성도라고 소개하기 조심스러운 시절에,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와 '특히'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을 쓰기 위해 약 3년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챕터를 쓸 때마다 많은 책을 읽고 소화하여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탁월한 통찰과 적절한 비유는 기독교를 더 빛나게 소개한다.

원인 분석과 대안 1: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다
저자는 오늘날 기독교의 자화상과 청사진을 제시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대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문제 중 하나는 반지성주의와 무속적 기독교일 것이다. 기독교는 역사를 거치며 엄밀한 체계와 구성을 갖춘 탄탄한 진리인데, 지식 없는 종교가 된 듯하다.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지성주의의 흐름은 합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종교처럼 보인다.

저자는 기독교가 이성과 과학을 무시하지 않고 역사와 배경과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소개한다. '계시'를 설명하는 면에 있어서도 왜 특별계시만 교회역사적으로 강조되었는지,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텍스트의 강조와 함께 콘텍스트의 필요성도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저자의 장점은 문제를 발견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만 잘 읽어도 우리의 기독교가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기독교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보편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내면의 변화와 구원의 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

원인 분석과 대안 2: 복음을 드러내다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은 독자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들려준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이다.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타종교를 향해 배척하고 공격하고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과 사상이 아니다. 나와 믿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

을 향해 지옥에 가라고 저주할 수 없고,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복음의 성격도 잘 설명한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단지 죽고 난 이후 저 세상에 서만 눈물과 슬픔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존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거점인 사람의 지성과 사상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되었고 사회에서 혐오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제는 정통 교리를 믿는 교회를 다니기에 정통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복음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는데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무서운 독약처럼 비춰진다.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능력은 죄를 해결하고 모든 것에서 구원한다는 것인데, 언제부터가 죄를 짓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슬픈 소식이 되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부요케 하는 것인데, 우리의 물질을 부요케 해준다고 변질되었다.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

원인 분석과 대안 3: 교회주의를 극복하다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거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전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성전이라 신성시한다. 교회는 한 성도이고 그가 가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음에도, 교회라고 모이는 집단을 절대화한다. 물론 이 공간이 가지는 특별함과 역할과 기능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교회 집단의 이익과 체제를 위한 곳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교회라는 곳의 체제 유지와 집단 존속을 목표로 삼으면 기업화되고 대형화되어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교회가 권력화되면 교회의 말이 더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교회 지

도자가 하는 말이 법처럼 여겨질 것이다.

교회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범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돕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고 주어진 자유를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대기업을 되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인간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곳이 되었다. 기도도 일을 위해 체제를 위해 하는 기도의 변질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성전을 옹호하신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는 인간을 도구화하고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기독교를 유지하고 확장했다. 체제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동과 차별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고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허무는 정신이다. 교회가 전체주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교회가 보편적인 원리와 일반 상식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 사회는 교회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결론

오늘날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었다. 대선을 거치며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는 혐오스러운 곳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런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에 사로잡히고 중독된 모습처럼 보인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인데, 언제부터가 '사랑'이 없고 폭력과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예수님의 삶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와 종교성을 채워주기 위해 인간에 의해 세워진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으로 진리가 역사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다.

우리의 복음은 결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지 않다. 복음은 나와 다른 타인을 적화시키지 않으며 공공성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한다.

교회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력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곳이고 그 나라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니 성도는 구원을 위한 발걸음을 여기에 맞추어 걸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서론

대선을 지나며 언론에 등장하는 기독교와 교회의 뉴스가 성도의 마음을 복잡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일반사회와 시민들까지 불편하고 황당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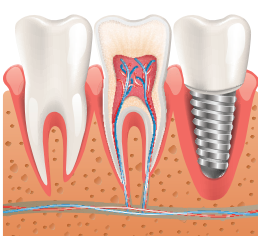
기독교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부를 향해 여전히 기독교 핍박과 탄압이라고 부르짖는다. 의료와 보건과 공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를 공격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느 종교나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신앙 내용이 보편적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교회의 모습은 보편적 진리가 상실되고 상식이 실종된 상황이다.

일반 종교도 폭력성과 위해성이 있으면 사회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교회는 사회악이 되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교가 된 듯하다. 복음은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박찬욱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헤어질 결심> (제1화)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너나 잘하세요” → “내가 그렇게 나쁘니까?”

박찬욱 감독, 선과 악 뒤섞인 삶 그대로 인정 촉구해 사회 구조적 악 대응하는 개인, 비윤리·불법도 가능 삶의 개별성 중시 실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 사상

성경적 해법, 이상적 선 규정돼야 악 물리칠 힘 얻어

어떠한 사회적 양상이든 끝내 선으로 악 이기길 권고 다원성 포용 기준, 시공 초월 고결한 하나님의 말씀



올해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자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CJ

◆캐릭터의 입체성: 박찬욱 감독의 주연 캐릭터가 보이는 두 가지 특징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지난 주 개봉됐다. 그는 이 작품으로 올해 칸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의 서사는 한국에 불법 밀입국해 결혼한 뒤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조선족 동포 여성 송서래(탕웨이)와 이 살인 사건을 담당한 형사 장해준(박해일 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작중 송서래는 한국인 남성과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 모두 남편을 살해하거나 살해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첫 번째 남편은 심한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송서래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두 번째 남편은 사기꾼인데다 모종의 이유로 그녀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장해준 형사는 불법체류자라는 위태한 처지에서 남편의 위협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송서래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녀가 첫 번째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하면서도 혐의를 덮어주려 한다.

송서래 역시 자신에게 애정을 보이고 배려해 주는 장해준 형사에게 깊게 빠져든다. 하지만 송서래는 자신 때문에 형사로서의 양심과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장해준 형사를 보면서 모종의 결심을 한 뒤 결말로 치닫는다.

이처럼 <헤어질 결심>은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한 범죄자 여성과 그녀를 수사하던 형사 사이의 연민과 사랑을 중심에 둔 로맨스 영화이다.

하지만 두 주인공의 관계에 얽힌 여타의 서사 요소들 덕분에,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영화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두 평범한 남녀의 현실적인 고충과

슬픔을 세심하게 조명하는 흡입력 넘치는 드라마로 승화된다.

박찬욱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도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주인공을 맡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주연 캐릭터들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부적응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착이 반영돼 있다. 둘째, 어떤 범죄나 불법적인 행동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주연급 캐릭터들에 대해 박찬욱 감독은 이 두 가지 공식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공동경비구역 JSA>(2000)에서는 군사분계선을 함부로 넘나들고 사건 은폐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범법자인 동시에, 민족 분단 현실의 피해자인 이수혁(이병헌 분)과 오경필(송강호 분)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박찬욱의 복수 3부작(<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진정한 금자씨>) 역시 각각의 주인공이 악질적인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에 대한 사적 제재를 가하는 범죄자이다.

<스토커>에서는 사이코패스인 삼촌에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지만, 삼촌에게 복수하면서 자신도 연쇄살인마로 거듭나는 십대 소녀 인디아(미아 바시코프스카 분)가 이야기를 주도한다.

<아가씨>에서는 자신을 색욕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모부(조진웅 분)와 자신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기꾼 백작(하정우 분)을 계략으로 몰락시키는 비운의 악녀 이즈미 히데코(김민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캐릭터의 다원성: 기독교적 인간이해와는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박찬욱식 인간이해

이번에 개봉된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송서래 역시 한국사회의 외국인 차별과 가부

장적 폭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그 자신도 땀땀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다. 즉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이 이처럼 선량함과 악의, 윤리와 비윤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뒤섞인 주연 캐릭터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선과 악을 그리 쉽게 재단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즉 인간 개개인, 특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행한 이들을 단순 흑백논리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찬욱 감독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제도화되거나 관습화된 악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에 만연한 범죄, 비윤리, 그리고 관계 파탄이 단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적 성격의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자행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구조적 악에 대한 박찬욱 감독의 진단은 몇몇 특정한 요소들(예를 들어 동성애와 근친상간에 대한 경멸의 정서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실제로 성경은 죄악의 문제가 개인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와 집단, 그리고 영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면밀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죄악의 문제 속에 깃든 이런 다층적인 성격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기독교적 해법과 박찬욱 감독의 사고방식은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 기독교적 해법은 이 죄악의 문제에 보다 정밀하고 엄정한

기준선을 제시해서 혼합된 선과 악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확고한 기준이 되는 이상적인 선(善)의 성격이 규정되어야 악을 물리칠 힘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독교적 해법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해법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악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든 간에, 또 그 속내가 얼마만큼 복잡하든 간에 끝내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권고한다.

반면 박찬욱 감독이 제시하는 해법은 반도 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다. 그가 영화에서 제시하는 대응책은 선과 악이 뒤섞인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정상 상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회의 구조적 악과 그로 인한 고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은 ‘상황에 따라’ 다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편협함을 버리고 각 개인이 처해 있는 부조리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그 속에서 선량함과 악의가 뒤섞인 채 살아가는 이들을 열린 마음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박찬욱식 메시지이자 해법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삶의 개별성을 중시하는 실존철학과 관계적 다원성을 내세우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상에 이르게 된다.

기독교적 인간이해는 삶의 다원성을 애써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원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지극히 고결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캐릭터들이 보이는 선악의 모호함, 양면성은 기독교적 인간이해가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과 삶의 지침에 크게 위배된다. 그는 특정한 초월적 이상에 의존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사고방식을 고수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의 처지를 대표하는 다음의 대사 속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내가 그렇게 나쁘니까?” <계속>

박찬욱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dvertisement for Alex Kim Trading, featuring used cars and contact information: www.alexkimtrading.com, 323.737.5900, 213.703.7077.

Advertisement for hair salon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213)392-2323.

Advertisement for Jun Lee Insurance, providing life insurance rates for 20-year term and flexible life insurance.

Advertisement for Junim Media, offering content creation services and contact: 323.265.0244, www.junimmedia.com.

Advertisement for Inex Auto Collision Center, offering car repair services and contact: 213.383.1230.

Advertisement for Cooking Mom, offering food delivery services and contact: 213.378.8530/213.674.7476.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